



사진 1



사진 2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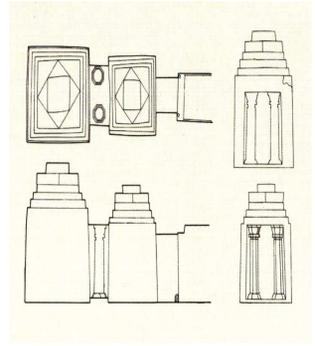


사진 4

## 삼국시대 - 고구려 쌍영총 고분벽화 속 등잔

고구려 유적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고분벽화이다. 고분벽화는 고분의 무덤 칸에 그려진 그림으로써, 당시 사회의 생활 풍속·신앙·종교·사상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어 역사·문화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고구려의 여러 고분벽화 중 특히 등잔관련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쌍영총(雙靈塚)을 들 수 있다.

쌍영총은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북쪽 구릉에 있는 흙무지돌방무덤(土塚)이다. 1913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조사하였을 때에 앞방(前室)과 널방(後室, 무덤칸)으로 이어지는 이음길에 설치된 2개의 8각 돌기둥이 확인되면서 쌍영총[두 기둥이 있는 무덤]으로 불리게 되었다. 무덤 안은 널길과 좌우로 축실이 딸린 전실(前室), 이음길, 널방으로 이루어진 두 칸 무덤이며, 앞방과 널방의 천장은 모두 평행삼각고임식 구조이다. 널방 안에는 전면에 회(灰)를 바르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 주제는 생활 풍속과 사신(四神)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방과 널방의 각 모서리와 천장 고임에 기둥, 도리와 들보 등을 묘사하여, 아늑한 목조건물처럼 보이게 하였다. 사신은 앞방과 널방에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청룡과 백호는 앞방의 동벽과 서벽에, 주작과 현무는 널방의 남벽과 북벽에 각각 배치하였다.

벽화의 중심이 되는 무덤 주인공 부부상은 현무와 함께 널방 안쪽 벽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물과 생활 풍속도는 같은 벽면에 묘사된 현무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신이 주가 아니라 부제(副題)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널방 왼쪽 벽에 그려진 공양행렬도(供養行列圖)에는 향로를 머리에 받쳐 든 인물과 가사장삼 차림을 한 스님을 앞세우고, 한 귀부인이 앞뒤로 시녀 여섯을 거느린 채 공양 나들이에 나서는 모습이 묘사되어 불교 의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님을 앞세운 귀족들의 공양행렬은 4~6세기 동아시아 불교 회화 및 조각에서 즐겨 다루던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음길에 세워져 있는 8각 기둥 위아래에는 주두(柱頭)와 주춧돌을 나타내고 연꽃무늬를 그렸으며, 기둥 몸체에는 붉은 바탕에 누런 빛깔의 황룡(黃龍)이 기둥을 휘감는 듯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앞방과 널방 고임에는 연꽃무늬, 꽃병무늬, 불꽃무늬, 구름무늬 등의 각종 장식무늬와 상서로운 새(瑞鳥)와 해와 달을 그려 넣었다. 두 방의 천장에는 모두 활짝 핀 연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널길 좌우 벽에도 기마대, 우차(牛車), 악대를 포함한 행렬도가 그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벽화는 전체적으로 인물들이 완숙하고 깔끔하게 표현되어 매우 발전된 회화 수법을 보여준다. 인물 풍속도와 사신도가 함께 나타나지만 인물 풍속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신도로 변화해가던 과도기의 무덤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벽화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쌍영총은 대체로 5세기 후반경의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설명들이 주로 쌍영총을 바라보고 기술하는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쯤에서 본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이 널방 왼쪽 벽에 그려진 공양행렬도이다. '공양인물도'라고도 하는데, 이 행렬도에서 맨 앞 인물이 머리에 받쳐 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앞선 기술에서는 향로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향로일까? 향로로 보기에는 형태도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사진1 쌍영총 서쪽 전경//《조선고적도보》2, 161쪽.

사진2 수축(修築) 후 쌍영총 정면(남쪽) 전경//《조선고적도보》2, 161쪽

사진3 쌍영총 무덤칸(널방) 투시도(透視圖)//《조선고적도보》2, 164쪽

사진4 쌍영총 실측도//《특별기획전 고구려 -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128쪽.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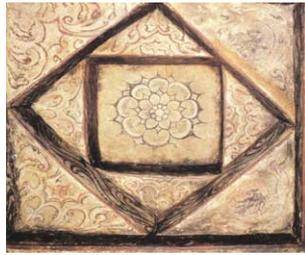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일제강점기 처음 쌍영총을 발굴할 때 참여했던 일인 학자의 단정이 그렇게 몰아간 부분이 있지만, 그 후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도 여기서 이 쌍영총 고분벽화를 설명하는 기술과 백과사전조차도 '향로를 머리에 받쳐 든 인물(사내아이 또는 여자아이)'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벽화 속 공양행렬도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두 번째 인물, 즉 가사장삼 차림을 한 스님이 향로와 같은 것을 들고 앞 사람을 뒤따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향로는 한(漢)이나 낙랑지역 출토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산로(博山爐)의 형식과 많이 닮아 있다.

따라서 공양행렬도의 맨 앞 인물은 '등잔(대)같은 조명 도구를 머리에 받쳐 들고' 앞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지금도 우리는 여럿이 어두운 길을 갈 때 가장 앞서는 사람이 조명을 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양행렬도에서 인물의 크기를 통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시대 다른 고분벽화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특징인데, 주종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물을 극대·극소의 비차(比差)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맨 앞 녹색(綠衣)을 입고 길을 인도하는 인물은 종이나 노비로서 당시 촉노(燭奴)·등비(燈婢)와 같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인물이 머리에 받쳐 든 등잔(대)은 등좌(燈座)의 운두가 필요이상으로 깊고 넓은 것으로 보아 아마 촛대는 아닌 듯 하며, 촛대의 납촉(蠟燭)을 세우는 대신 등좌 안에 덩어리진 기름(膏油)을 넣어 연소시켜 조명의 구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등잔(대)은 고구려시대 대표적인 양식으로서 가끔 한이나 낙랑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들 지역에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 KEA

● 중국 훈로(薰爐)의 일종이다. 두(豆)모양을 한 접시형태 위에 원추산악형을 한 뚜껑이 있고 밑에 승반(承盤)이 있다. 뚜껑의 산악에는 금수가 배치되고 비단속의 선산(仙山)을 본뜬 것이라 한다. 두의 손잡이 부분을 인물 또는 새와 짐승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전국 말기에서 한대에 많이 이용되었다. 도제, 청동제가 있고 청동제는 허베이성 만성한묘(滿城漢墓)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금은색상감의 우수한 품질의 것도 있다. 불구(佛具) 향로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어 연화형 향로, 금산사형 향로 등의 형식이 생겼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낙랑에서 출토된 청동박산향로(靑銅博山香爐)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사진 및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 2, 조선총독부장판, 1915.

이영훈, 신광섭 공저, 《한국미의 재발견》 고분미술 편, 2005, 솔출판사.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2002.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5 쌍영총 앞방에서 본 쌍 8각 기둥// 《특별기획전 고구려 -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129쪽.
- 사진6 쌍영총 앞방 천장 벽화// 《특별기획전 고구려 -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130쪽.
- 사진7 쌍영총 무덤간(널방) 동쪽 벽화 전경// 《조선고적도보》 2, 188쪽.
- 사진8 무덤간 동쪽 벽화 공양행렬도 앞부분// 《조선고적도보》 2, 189쪽.
- 사진9 무덤간 동쪽 벽화 공양행렬도 뒷부분// 《조선고적도보》 2, 189쪽.
- 사진10 무덤간 동쪽 벽화 공양행렬도 앞부분 채색도// 《조선고적도보》 2, 190쪽.
- 사진11 무덤간 동쪽 벽화 공양행렬도 뒷부분 채색도// 《조선고적도보》 2, 190쪽.
- 사진12 공양행렬도 맨 앞 인물 부분 - 등잔(대)을 머리에 받쳐 들고 가고 있다.